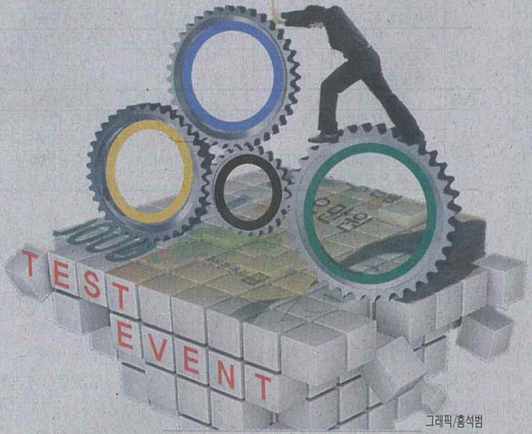


올림픽시설 국비 부족 테스트이벤트 '불투명'



◇ 평창올림픽 관련시설 국비 확보 상황 (단위: 억원)

시설명	사입비		2015년 예산현액	2016년			부족예산
	합계	국비		요구액 (강원도)	부처안 (분체부)	심의결과 (기재부)	
합 계	1조3395	9506	5241	3562	3051	2891	671
경기장	8063	6047	3592	2158	1857	1721	437
기존 경기장	554	415	57	307	257	257	50
진입도로	3552	2486	1492	947	787	763	184
개폐회식장	1226	558	100	150	150	150	-

도, 내년 3562억 신청 당초보다 671억 줄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내년 국비 예산 확보액이 턱없이 모자라 일부 종목의 테스트이벤트 개최가 불투명해지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강원도는 내년으로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해 정부에 내년 사업비로 총 3562억원을 신청했다. 분야별로 경기장 건설 2158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307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947억원, 개폐회식장 건설에 15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개폐회식장 건설 예산만 원안대로 통과됐을뿐 경기장 건설 301억원, 기존경기장 개보수 50억원, 진입도로 건설 16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강원도 신청액보다 511억원이 줄어들었다.

문체부에서 상당액이 감액된채 기재부로 넘어갔지만 기재부는 다시 올림픽 관련 예산에 갈을 들이겠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경기장 건설 예산에 집중됐다. 기재부의 내년 예산 1차 심

의 결과 경기장 건설 예산은 문체부 안에서 다시 137억원이 삭감됐다. 강원도가 당초 신청한 경기장 건설 예산보다 총 437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대로 반영했지만 이 역시 당초보다 50억원이 감액됐다.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문체부안에서 20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도의 안보다 총 184억원이 줄어들었다.

예산 삭감이 경기장 건설 예산이 집중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일부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도에 따르면 정선알파인 경기장과 평창 스노보드 경기장은 내년 2월,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는 12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정선알파인경기장은 26.6%, 보광스노보드 경기장은 3%,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24.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당초 신청한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은 물론 예정된 테스트 이벤트 개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백오인 105in@kado.net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 74兆... 지난해보다 49% 증가

올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과 비교해 4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수주액은 73조9097억원을 기록했고, 공공·민간공사는 각각 8.1%, 80.5% 상승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공공부분의 수주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발표한 국내건설 수주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협 발표... 공공 8.1% - 민간부문 80.5% '경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경기 회복이 견인차 역할

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 49조6551억원에서 24조2546억원 상승한 73조909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수주액이 23조44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1조6965억원) 대비 1조7505억원 증가한 수치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50조46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5% 늘었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 27조9586억원에서 무려 22조5041억원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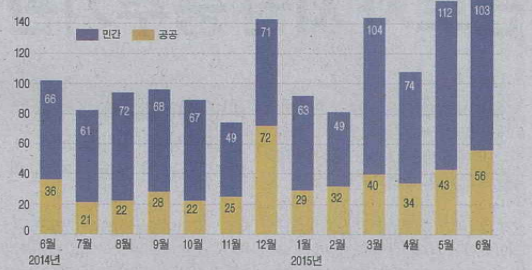
공공부문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주상비광사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화성동탄2집단지하철도공사 등이 수주액 상승을 이끌었다.

민간부문은 기계설치와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용 부문에서 호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요 공사는 혼합자일련 플랜트공사, 여의도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용인 성복지구 특별계획구역 복합단지 신축, 고덕3단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이 마티움 SOC예산 집행과 추경발령 집행 가시화 등으로 회복세 전환이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증가하는 미분양주택, 미국 금리인상 등이 국내 건설시장

월별 국내 수주실적 (단위: 천억)



연도별 상반기 국내 수주 실적 (단위: 억)



의 활황은 좀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국내건설 공사수주액은 15조865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9% 상승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5조59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6% 증가했고, 민간부문 수주액은 10조269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협용기자 je@eday@

“노동·공공 등 4대개혁 강력 추진”

朴 대통령 '경제재도약'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 재도약'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방안 경영 개선을 고려한 공공부문 개혁, 입시·스펙 위주의 교육 개혁, 경제의 활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 개혁 등 4대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재료·노무·장비 포괄한 원가지표〉

상반기 건설공사비 지수 급락 표준시장단가에 '악영향' 우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를 포괄한 원가 지표인 건설공사비 지수가 올들어 급락세다.

새 노임단가가 발표된 1월을 뺀 전월 대비 지수는 5개월째 약보합(5월만 포함)이고 올해 상반기 공사비지수 증가폭은 작년 상반기의 20분의1가량으로 둔화했다.

유가 급락에 따른 경유와 철근 등 금속제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다만 모래 등 골재가격은 초강세를 보이면서 전자재업계 중 레미콘업계만 원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올해 6월 건설공사비지수(잠정치)'는 2010년 기준(100)으로 113.29로 5월보다 0.11%, 작년 6월보다 0.03%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등을 토대로 건설공사원가 변동폭을 반영한 지수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물론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시장단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지수는 올해 상반기 건설업 노임 인상(1.79%) 여파로 전월 대비 0.20% 오른 1월을 제외하면 약보합세(2월 -0.18%, 3월 -0.09%, 4월 -0.45%, 5월 0%)다. 1월 지수의 상승도 노임 효과일 뿐, 자재·장비는 급락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누적 지수 증가폭도 0.10%로 반기 단위로는 거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의 연도별 지수 증가폭은 2012년 4.37%, 2013년 1.59%, 작년 1.94%였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한

**근로자 임금 1.79% 올랐지만
저유가로 자재·장비값 하락
레미콘 원료는 오히려 상승**

올해 상반기 지수 증가폭이 20분의1에 그칠 정도로 자재·장비 투입비용 부담이 줄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품목별 6월 지수는 보통철선(-4.1%), 주철관(-4.0%), 아크용접강관(-3.8%) 등 금속재의 하락폭이 두드러졌고 목재갈판(-3.2%), 절연전선(-2.8%), 플라스틱타일(-1.7%), PVC수지(-1.6%), 조립식 건축물용 금속패널(-1.0%), 각재(-0.5%), ABS수지(-0.4%), 보통강 형강(-0.3%), 아연도강선(-0.3%) 등이 고르게 하락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건설장비의 연료인 경유 지수도 2.0% 떨어졌다.

반면 동관(2.7%), 휘발유(1.8%), 모래(2.3%), 광섬유케이블(1.5%), 전력선(0.4%), 보통간단조물(0.3%) 등은 반대로 올랐다. 공종별(6월 지수)로는 주거용 건물(-0.08%)과 비주거용 건물(-0.10%) 등 건축공사보다 토목건설(-0.16%)의 낙폭이 컸지만, 최근 건설경기를 견인하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공사비 지수의 경우 노임 상승 효과에 힘입은 1월(0.27% 상승)을 빼면 5개월(2~6월)간 연속으로 떨어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유가, 금속제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월 1.79% 오른 노임상승폭을 상쇄시켰다. 하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 같다"며 "8월 말 새로 공표할 표준시장단가나 기타 건설공사 관련 비용책정 때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건설공사 투입비용, 즉 원가가 계속 떨어지면 실적공사비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표준시장단가의 2차 공표 때 영향도 불가피하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 특성상 정부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정이다.

원자재가 하락세 속에 건설자재업계의 원가 부담이 완화됐지만 레미콘은 사뭇 다르다. 레미콘의 양대 원료 중 하나인 골재 및 석재 가격이 6월에만 0.4%, 모래 가격은 무려 2.3%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멘트 가격도 요지부동이다. 부원료인 플라이애시 가격은 중부발전의 경쟁입찰 전환 후 28% 급등했고, 발전사들마다 이를 참조해 인상에 나서면서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중견레미콘사의 한 임원은 "하반기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 골재업체들이 이달 1㎡당 공급가를 2000원 인상하겠다고 통보했고 믹서트럭 운반비 인상, 기타 인건비 및 경비 부담에 플라이애시도 급등세"라며 "레미콘 가격을 인상하든, 시멘트 가격을 인하하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풀려 공사비 책정에 숨통이 트인 건설업계도, 작년 순익을 실현한 시멘트업계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고 답답해 했다.

김국진기자 jenny@